

# 일기 등의 잡기에 나타난 조선후기 문인의 일상과 의미

김남기(조선대)

1. 머리말
2. 조선후기 문인의 일과와 기술 태도
3. 다양한 경험과 현실의 성찰
4. 맺음말

## 1. 머리말

인간의 삶에 있어서 生老病死는 숙명적인 것이다. 인간은 생로병사라는 숙명적 여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하게 된다. 다양한 경험과 인식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생활의 집적 속에서 개인적 성취와 삶의 의미가 부각되기도 한다. 일상이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행위하고 사고하는 반복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삶의 양태라고도 할 수 있다.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요소이다.

그러나 반복적 경험이라도 동일한 반복이 아니고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일상의 특징이다. 독서 행위 자체로 볼 때 독서라는 포괄적인 범주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구체적인 독서물로 한정할 때 그 독서는 특수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삶만이 일상의 구성 요소는 아니고 특수하고 일회적인 것도 일상의 범주 속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은 일상을 벗어난 경험이지만 일상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관직 생활도 과

거에 급제한 양반에게는 일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상일 수가 없다.

이처럼 일상이란 동시대인이 공유하는 삶의 정형성이면서도 계층적, 지역적, 문화적, 연령적, 성적 차이를 지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일상은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은 일상이면서 비일상일 수도 있고, 비일상이면서 일상일 수도 있다. 즉 초역사적인 불변의 일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개인의 내적 역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일상은 자신이 처한 시공간과 사회적 제요소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고, 이것에 따라 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에도 가정과 사회의 외적 요인에 의하여 개인의 역량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비하여 士農工商이라는 엄격한 신분제적 질서 속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당위적으로 분담해야 했던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했는가 하는 점은 오늘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는 현재의 우리 삶의 토대와도 일정 정도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 다양한 계층의 삶의 양태는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범박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생활의 구체적인 양상은 언급하기가 어렵다. 특히 문자로 자신의 생활을 적기에는 많은 제약을 받았던 하층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사유를 적시한 문인들의 삶을 고찰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그들은 日記, 雜記, 雜錄, 行狀, 實記, 遺事, 傳, 祭文, 碑誌 등의 글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였다. 물론 이 속에는 다른 계층의 삶이 일부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글들을 검토하면 조선후기 문인들의 삶의 양태를 일정 정도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문인들의 일상을 다루는 것도 그 전체성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료의 제약 못지않게 그들의 일상은 개인마다 편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지역을 여행하거나 같은 관직 생활을 하였더라

도 실제 기록된 내용은 詳略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동일한 대상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세계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고 이를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글들은 세세한 사실을 적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은, 단순한 반복적 행위는 기록하지 않고 변화가 수반된 반복적 행위 내지는 특수한 경험과 인식을 기술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일기와 잡기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후기 문인들이 어떻게 생활하였고, 자신의 일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기록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조선후기 문인의 일과와 기술 태도

조선후기 문인들의 일과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많다.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들의 훈육을 담당하며, 가정의 대소사를 점검하고 독서와 강학을 하고 손님 응대하는 등의 일은 관직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관리들의 경우 문서를 결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정무 업무가 추가되지만 하루 단위의 일과는 비슷하다. 개별적인 일기에 대소사가 적혀 있어 그것을 토대로 그들의 하루 일과 내지 삶의 모습을 추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많아 그대로 조선후기 문인의 일과로 간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문인들의 하루 일과는 어떠했는가?

조선후기 문인의 일과를 잘 보여주는 예로 경상도 선비 尹最植이 편찬한 『日用指訣』을 들 수 있다. 윤최식은 1880년(고종 17)에 편찬한 『日用指訣』에서 자신의 하루 일과표를 제시하였다. 이 기록은 자신의 일과 계획표이자 당대 유자들이 공유하던 하루의 일과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하루 생활을 12등분하여 매 시간마다 행해야 할 행동 수칙을 적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寅時 :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고 뜻을 세우고 몸을 공경히 하는 공부를 한다.

- 卯時 :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독서와 사색을 한다.
- 辰時 : 식사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히 살핀다.
- 巳時 : 자제에게 독서를 시키고 끈게 앉아 독서를 하며 손님을 응접한다.
- 午時 : 식사를 하고 노복들의 직무와 자식들의 독서를 살핀 뒤 독서하고 편지를 쓴다.
- 未時 : 오래도록 독서하되 심신이 피곤하면 여기(묵상, 산책)를 즐기기도 한다.
- 申時 : 식사를 하고 천천히 글의 맛을 음미하며 읽되 여유 있는 마음을 지닌다.
- 酉時 : 부모의 잠자리를 살피고 가솔들의 일을 점검한 뒤 자제들의 독서 의문처에 답해 준다.
- 戌時 : 집안 문단속을 한 뒤 일기와 장부를 정리하고 자제들에게 배운 것을 복습하게 한다.
- 亥時 : 의관을 풀고 취침한다
- 子時 : 깊은 잠에 든다.
- 丑時 : 첫닭이 울면 일어나 정신을 거두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sup>1)</sup>

윤최식은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 가사 감독과 손님 접대, 독서와 수양 편지와 일기쓰기 등 자신의 일과를 시간에 따라 적고 있다. 이러한 일과는 계절에 따라 시간이 일부 변하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寅時에 일어난다. 그는 이러한 일정표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그 속에서 유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였다.

윤최식의 일정표는 당대 유자들의 일반적인 일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18세기 사인 沈鑣(1685~1753)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육은 1710년 5월 의주부윤으로 부임하는 아버지 沈壽賢을 따라 평안도 의주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듬해 11월 서울로 돌아온다. 이때 심육은 「瀾館錄」이라는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일기 중에서 1711년(숙종 37) 3월에 적은 다음의 기사는 심육의 일과와 함께 유자로서의 생활 자세를 잘 보여준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서 上房에 나아가 문안을 드린 뒤에

1) 「[교문서...역사와의 대화]〈4〉 ‘日用指訣’」(동아일보, 2004년 5월 24일)에서 정리.

곧바로 다시 서실로 돌아와서 책상을 바르게 하고 무릎을 모으고 똑바로 앉으며 몸을 곧게 하고 시선을 높게 한다. 읽던 바의 책을 꺼내어 소리를 가다듬어 낭랑하게 몇 편을 음송한다. 식사 전에 간혹 응대할 일이 있더라도 마땅히 해야 하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긴요하지 않아서 식사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면 짐짓 내쳐두는 것이 합당하다. 식사 전에 정한 바의 과정과 공부 마치고를 기다린 뒤에 천천히 응접하는 것이 좋다. 밥을 먹은 뒤에 君子樓에 나가 활을 쏘되 候는 5巡을 한도로 하고 과녁은 7巡을 정식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체증을 그치게 할 수 있으니 또한 공부에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붓을 뽑아 大字를 쓰고, 또 대소의 글자를 익히고 싶으면 또한 스스로 참작해서 하면 된다. 그런 뒤에 日錄을 수습하여 또 마음과 손이 가는데로 취하고, 일상생활의 일을 대략 적는다.

간혹 사물에 가탁하여 말을 만들고, 또한 때에 따라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기록하여 작성한다. 이미 또한 본 바의 문자를 취하여 자세히 보고 行을 따라 상세하게 열람하고서 간혹 뜻에 맞는 곳, 경구가 될 만한 곳, 기록할 만한 곳이 있으면 또한 소리를 내어 세 번 읽고, 또한 채록할 것이 있으면 箭錄에 합편한다. 그 사이에 남과 더불어 기부를 논할 일이 있으면 혹은 출입을 하고, 혹은 편지로 알린다. 혹은 아동을 가르치는 등의 일도 일체 내쳐서는 안 된다. 각각 마땅함을 좇아서 응대하되 일을 이미 마치면 다시 과업에 나아가 종사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크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어 거의 날마다 이로움이 있을 듯하다.

무릇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절로 수작하고 왕래하는 일이 있거니와 이것을 싫증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각각 자신의 부류에 따라 이치상 당연한 것을 말미암아 행해야 한다. 시비를 가려서 좇거나 따르지 않되 여기에 골몰하여 뜻과 기운을 어지럽게 해서 안 된다. 비록 심상한 일상사에 있어서는 조금도 소홀하게 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 또한 공부이니 어찌 책을 읽은 이후에야 반드시 공부라 할 수 있겠는가? 程子(程頤)가 말하기를 “人事는 남에게 하게 해서 안 되니 다시 누구를 책망하겠는가?”라 하였으니 이 말을 나는 마땅히 마음에 품고 삼가 행했다.<sup>3)</sup>

2) 人惡多事, 或人憫之, 世事雖多, 盡是人事, 人事不教人做, 更責誰何.(『二程遺書』 권 15)

심육의 일과도 윤취식의 것과 비슷하다. 아침에 일어나 용모를 단정하게 한 뒤 문안 인사를 드리고 서실로 돌아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독서를 한다. 식사를 한 뒤 손님을 응접하고 君子樓에 가서 활쏘기를 하여 심신을 맑게 한 뒤 詩文의 창작, 글씨 쓰기, 일록 작성, 편지 쓰기, 자제 교육 등을 행한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유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행하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人事의 실천이 바로 삶의 공부라고 하여 일상사를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하였다. 윤취식도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바로 공부의 참된 장이다”라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상사의 주관이 참된 학문의 방법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결국 조선시대 유자들은 일상사를 자갈한 것이라 하여 하찮게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상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그들의 각종 기록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문인들은 자신의 일과와 일상에서 견문하는 사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는가? 그들의 기술 태도를 고찰하면 어떠한 사항을 기록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林泳과 兪晩柱의 예를 통하여 살펴본다. 다음은 林泳(1649~1696)이 1666년(현종 7)에 쓴 <日記序>이다.

이 일기에는 무릇 나의 일용의 動靜과 言語, 일을 적었다. 일기는 왜 쓰는가? 장차 儉心과 妄念을 畏敬하고 기탄하여서 감히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외경과 기탄은 마음에서 말미암지 외물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한 것이 또한 외물인데도 지금 일기를 쓰는 것은 왜인가? 외물을 엄격하게 대함은 마음을 경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기록함에 말을 삼가고

3) 沈鎔, <灣館錄>(『樗村先生遺稿』 권39 「日記」). 朝起盥櫛, 就上房省見後, 卽復來書室, 正其几案, 斂膝危坐, 正體尊視. 抽出所讀書, 平其聲氣, 朗然吟誦多少遍. 食前, 雖或有酬應之事, 亦可量宜爲之. 若不甚緊, 猶可於食後爲之亦未晚, 則亦合姑置之. 以竣食前所定課程畢工後, 徐徐應接乃佳. 既食則就射于君子樓, 候則限以五巡, 貫革則以七巡爲式, 如此滯病可已, 而亦不甚害工矣. 又拈筆書大字, 又欲小寸習字, 則亦須斟酌爲之. 然後修日錄, 又取漫成, 畧抒日用間事, 或寓物成語, 亦隨其時所欲言者, 錄成之. 既又取所看文字仔細看過, 逐行詳閱, 而或有會意處警動處可記處, 則亦可出聲讀至三遍, 又有可採者, 則亦合節錄. 而其間有與人相可否事, 或出入或書尺相報. 或兒童訓藝等事, 不可一切放倒. 各隨其宜而應之, 事已竣則復就課法中從事. 如是則似不至大段浪漫, 庶有日益矣. 大凡人生於世, 自有酬酢往來之事, 此不可有厭惡之志, 而各於其類因其理之當然者行之, 擇其是非而從違之, 而不宜以此汨撓其志氣, 雖於尋常日用事, 不敢毫忽怠慢. 是亦工夫, 奚讀書而後, 必謂之是工夫也. 程子曰, 天下事不教人做, 更令甚做, 是言余當佩服而敬行之.

문장을 아름답게 하지 않은 것은 왜인가? 꾸며서 남의 좋은 점을 말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를 하지 않은 것은 왜인가? 좋은 점을 드날리고 능하지 못한 것을 숨기기 때문이다. 그 일이 징계하고 권면하기에 부족한데도 모두 기록함은 왜인가? 懲勸하기에 부족한 것은 약술하고, 懲勸하기에 족한 것도 그렇게 할까 두려워서이다. 그 언행이 과장에 가까운데도 덮어버리지 않는 것은 왜인가? 그 좋은 것을 덮어버리면 나쁜 것 또한 숨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아아! 홀로 거처하는 사이의 자잘한 일 중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만 이는 것을 한결같이 여기에 적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 엄격하게 함이 어찌 다만 열 사람이 지적하고 열 사람이 보는 것에서 그치게 할 뿐이겠는가? 아아! 그것 또한 멋대로 해서 안 될 따름이다. 병오년(1666) 가을에 쓰다.<sup>4)</sup>

임영은 일기의 대상 및 엄정한 일기 기술의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먼저 일기는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의 동정과 언어, 일을 적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상사는 유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일기를 쓰는 이유는 외경과 기탄을 통하여 자신의 투심과 망념을 제어하려는 데에 있다. 투심과 망념을 제어하려면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하는데 동정과 언어, 일 등 외물을 적는 것은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이고, 말을 삼가고 문장을 꾸미지 않는 것은 남의 장점만을 언급하여 허식에 귀결되는 것을 싫어해서이고, 일이 징계와 권면에 부족한데도 적는 것은 이를 빌미로 하여 다른 것들마저 적지 않을까 해서이고, 언행이 과장에 가깝더라도 적는 것은 좋은 점을 덮어버리면 나쁜 점도 숨을까 두려워서이다. 결국 임영은 일신상의 자잘한 일일지라도 모두 적어 자신의 放肆함을 제어하고 엄격한 삶을 살코자 하는 목적에서 일기를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일기가 인간의 심성 수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林泳, <日記序>(『滄溪先生集』 권 16). 是記, 凡吾日用動靜話言事爲, 皆記焉. 記之何? 將使儉心妄念有所畏敬忌憚而不敢肆也. 畏敬忌憚由心不由物, 記亦外物也, 而今爲之何? 嚴其外, 所以警其心也. 記而不飭辭繳文何, 惡其史也, 與人言善則著其人, 其餘則否何, 揚善而匿不能也. 其事不足懲勸而皆記之何? 恐其於不足懲勸者略之, 於足懲勸者亦然也. 其言行近乎誇, 猶不掩何也? 恐其於善有掩, 於惡亦有掩也. 嗚呼! 幽獨之中, 細微之事, 人所不知而已獨知之者, 一書之此, 觀此者皆知之, 其嚴豈特十手指十日視而已. 嗚呼! 其亦不可肆也已. 丙午抄秋書

俞晚柱(1755~1788)는 임영에 비하여 보다 철저한 기록 정신을 보여준다. 다음은 1775년(영조 51)과 1780년(정조 4) 『欽英』에 붙인 서문이다.

날마다 기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바이다. 무릇 사람이 세상에 나서 일이 있지 아니할 때가 없으니, 일은 내 몸에 모여들어 항상 그치지 않는 바, 날마다 다르고 달마다 다르다. 대저 이 일이란, 가까우면 상세하고, 조금 오래되면 희미하고, 이미 멀어지면 잊어버리게 된다. 만일 일기를 쓰면 가까운 일은 더욱 상세하고, 조금 오래된 일은 희미해지지 않고, 이미 멀어진 일도 잊지 않으니,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일은 이로 말미암아 따르게 되고, 그 잘못된 것도 이로 말미암아 경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기라는 것은 이 몸의 역사이니,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sup>5)</sup>

잡박하고 어지러운 것을 꺼리지 않았으니, 역사를 논하다가 혹 이어서 경전을 논하고, 경전을 논하다가 혹 이어서 역사를 논했다. 조정의 邸報를 쓴 사이에 古文이 있고, 또 古文을 실었는가 하면 그 아래에다 傳奇, 小說, 術藝, 名物을 적었다. 또 혹은 理氣와 字韻 또 혹은 碑版과 記傳 詩詞 異端을 적었으니 모인 바가 一類가 아니고 바로잡아 밝힌 바가 一品이 아니다. 이로써 특정한 데 구속되지 않는 법을 열었고, 세간에 유통되는 例를 벗어났다.<sup>6)</sup>

날마다 人事를 적는 것은 고금에 통용되는 바이다. 사람에게 일이 없던 적이 없고, 사람의 일은 구체적인 경험에 있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다르게 적지 않을 수가 없다. 일기를 쓰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 개인의 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 俞晚柱, <欽英乙未序>(『欽英』1권). 日之有記, 古今之所同也. 凡人生世莫不有事, 事集于身而不常止也, 故日異而月殊. 夫是事也, 近則詳, 稍久則迷, 已遠則忘. 苟日記之, 近者有詳, 而稍久者不迷, 已遠者不忘, 事之不愆于度者, 可因此循之, 其失者, 亦因此而警焉, 則日記者, 身之史也, 何可忽哉. 金何羅의 「日記文學으로서의 欽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31면에서 재인용.

6) 俞晚柱, <欽英庚子序>(『欽英』3권). 毋忌乎雜亂, 則論史或繼之以經, 論經而或繼之以史, 政注邸報之間, 或有古文, 既古文矣, 而下或傳奇小說術藝名物, 又或理氣字韻, 又或碑版傳詩詞異端, 所萃非一類, 而所訂非一品, 于以開不局之法, 出流通之例. 金何羅의 「日記文學으로서의 欽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21면에서 재인용.

일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기에는 자신의 일상사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역사가 된다. 유만주는 “크게는 聖智와 英能의 작용, 작게는 풀과 벌레와 새들의 生成에 이르기까지,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마음에 느낀 것이라면 좇아 적지 않은 것이 없다”<sup>7)</sup>고 언급하였거니와 독서 및 현실 생활에서 접하는 고금의 역사, 사상과 문학 등 다양한 학문을 집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였다.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기보다는 복잡다단한 현실 자체를 일기 속에 담아내려 했던 것이 그가 지향한 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博과 實을 추구한 글쓰기 정신<sup>8)</sup>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윤취식과 심육을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후기 문인들의 일과 및 일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임영과 유만주의 글을 통하여 일상 및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에 대한 인식과 기술 태도를 고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후기 문인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현실의 성찰을 글쓰기의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다양한 경험과 현실의 성찰

공자는 말년에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sup>9)</sup>라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였다. 선인들은 공자의 이러한 삶의 궤적을 자신의 삶 속에 체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당시의 사회적 경향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 중의 하나가 平生圖라 할 수 있다. 평생도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념이 될 만한 경사를 그린 그림으로 官人의 인생관과 출세관이 반영되어

7) 俞晚柱, <欽英庚子序>(『欽英』3권). 鉅而聖智英能之所作用, 微而蓬蓫螟螣之所生成, 若耳之所聆, 目之所睹, 心之所感也, 无不隨而筆之.

8) 金何羅, 「日記文學으로서의 『欽英』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21면

9) 『論語』「爲政」.

있다. 보통 8쪽으로 제작되었는데, 주로 돌잔치, 글공부, 혼인, 과거급제, 벼슬살이, 회갑, 回婚 등으로 구성된다. 송암미술관 소장 평생도는 돌잔치, 글공부, 장원급제와 三日遊街, 신행길, 감사 부임, 관내 순시, 환갑잔치, 奉朝賀 임명 등 여덟 쪽으로 되어 있다. 승경도놀이도 벼슬의 차제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고위 관직을 역임하고 싶은 선비들의 욕구의 발현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지향이 현실화되기를 기원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선비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며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잘한 일상사를 알고 잘 처리하는 것이 참된 공부이자 선비가 실천해야 할 규범이었다. 18세기 후반 이후에 편찬한 저자 미상의 『家政野談』<sup>10)</sup>은 서적이나 견문한 바를 통하여 가정의 책무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규범적인 내용 59항목을 적고 있다. 저자는 일가의 흥패는 가장에 게 달려 있으니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한 뒤 의식주 생활에서의 예법, 부모를 모시는 방법, 형제·부부·종족·이웃 간의 관계, 농사·재용·비복 등 집안을 다스리는 법, 독서와 수양, 관례·혼인·상례·제례 등을 주관하는 법, 경전·시문·천문·지리·卜筮 등의 다양한 학문, 자녀의 교육 방법 등 다양한 생활 지침을 적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가정의 일상이면서도 한 개인이 성장하여 죽을 때까지의 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문인들은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는가? 여기에는 개인의 구체적인 일상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의 대소사, 고금의 역사와 인물의 일화, 당대의 정치 현실, 독서 경험의 요약 등 다양한 양상을 담고 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이러한 부분도 당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일과의 하나였겠지만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10) 『家政野談』(一養 고 031-G129) 규장각 소장 1책 세부 항목은 擇居止, 先修身, 七情 言語 容儀, 衣服, 飲食, 掃灑, 讀書, 立志, 知國恩, 孝父母, 養志義, 養口體, 兄弟, 夫婦, 置妾, 訓子孫, 教女兒, 睦宗族, 恤婢僕, 擇朋友, 厚隣里, 力農桑, 治財用, 防火災, 備盜賊, 謹封, 敬祭, 勸讀書, 讀書雜戒, 安貧賤, 戒酒色, 擇技藝, 文章, 詩, 畫, 琴瑟, 武藝, 天文, 地理, 相, 卜筮, 命課, 時嫁娶, 加冠禮, 分家產, 保軀命, 定貧富, 知預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것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일상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문인이 직접 목도한 몇 편의 글을 통하여 그들이 바라본 현실 및 일상적인 삶의 모습, 또한 일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부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양란을 겪은 이후 조선사회는 제도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도 하였다. 숙종 연간에 상당한 제도의 정비 가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특히 田政·軍政·還穀 등 三政의 폐단이 더욱 심하였다. 제도의 문란은 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제도를 집행하는 수령의 무능과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들의 사욕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 많은 식자들이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고 개선하려 하였지만 제대로 혁파되지 않았다. 金昌翁(1653~1722은 1715년(숙종 41) 강원도 平康 수령으로 부임한 장남 用謙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 군정의 문란과 백성들의 참상을 지적하고, 수령이 된 자로서 이를 개선할 것을 권하였다.

고을마다 폐해와 고질이 없는 곳이 없더구나. 여기 와서 本邑의 弊癘을 들 어보니 관청 軍官의 횡포가 지나쳐 통탄할 만하다. 대개 그 수가 많고 세가 성하여 저절로 권력을 농단하는 방도가 생긴 것이니라. 관리가 된 자가 조금 이라도 밝게 관리하지 못하면 곧 그들의 놀림감이 될 것이다. 무릇 멀고 외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노약자라도 軍案에 기재하여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고, 혹은 아전과 함께 이익을 나누니 그 폐해를 다 적을 수가 없다. 그들은 軍額의 수가 이미 많으니 비록 빠진 것이 있더라도 보충하지 않음이 옳 다. 그런데 어찌 반드시 한결같이 그들의 말을 따라 서둘러 어린이와 노약자 를 군안에 집어넣는 것으로 힘을 쓰겠느냐?

또 관리가 된 자가 말을 듣고 일을 처결함에 밝게 알고 명확하게 판단하여 아래에서 능히 속이지 못하는 자라야 상등이 되고, 전혀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만나면 가벼이 처리하면서 오직 아랫사람들의 말만 듣는 이는 하등이 될 것이다. 일의 가부간에 명료하게 알지 못하면 말을 듣는 즈음에 더욱 살피 고 삼가여, 꺾끄럽게 응하고 쉬이 좃지 않아 아랫것들에게 농락을 받지 않으면 또한 중등은 될 것이다.<sup>31)</sup>

김창흡은 1714년 설악산 永矢菴에 머물다가 虎患으로 종자를 잃자 평강 浮石寺로 거처를 옮겼다. 김창흡은 평강에서 아전들의 이욕과 횡포 때문에 군정이 문란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통탄하였다. 아전들은 무능한 수령을 요리하여 수탈을 일삼고 있었다. 이에 김창흡은 수령된 자가 마땅히 일을 밝게 살피고 공정하게 처결할 것을 권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경향을 막론하고 경제적인 도움이나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각종 계가 활발하게 결성되었다. 다음은 閔友參(1679~1740)이 1724년(경종 4)에 쓴 <書契序>로 서계 결성의 과정과 취지를 보여준다.

(…) 나는 어려서 독서할 때에 하다가 말다가 하여 나이가 이미 늙그막에 이르러서도 마음에 새겨 힘쓰지 않아 대강 성명만을 기록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 흰 머리가 실처럼 늘어졌으나 후회해도 어쩔 수 없었다. 후생이 때에 미쳐서 학업에 힘쓰지 않으면 되겠는가? 내가 이에 개탄하면서 그들을 가르칠 방도를 도모하였다. 이에 일가에게 문의하니 이구동성으로 호응하여 재물을 출연하고 힘을 한가지로 하여 해마다 이자를 증식하여 붓과 먹 및 책을 갖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면 얻지 못함이 없게 하고, 사용함에 풍부하게 하지 않음이 없으니 절차탁마의 공업을 이룬다면 그 학문을 권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찌 조금이나마 보탬이 없다 하겠는가?

아야! 일세를 돌아보건대 계를 만든 것이 어찌 한정되어 있으리오마는 우리 계는 다른 것과 같지 않고, 일가의 자제들을 위하여 한 것이니 그 뜻이 어찌 그 책을 배우고 그 미혹됨을 푸는 데에서 그칠 뿐이겠는가? 대개 여러 대의 후손들이 그 촌수가 멀어져도 정은 돈독하게 하고 친속관계가 소원해도 의리는 긴밀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sup>11)</sup>

11) 金昌翁, <寄養謙>(『三淵集』 권14 「拾遺」). 郡邑莫不有弊固也. 來此聞本邑弊瘼, 則官軍官橫濫爲可痛. 蓋其數夥勢盛, 自有弄權之道. 爲官者稍不照管, 則便被其簸弄. 凡在遠村僻塢者, 以兒弱着案, 而百般侵擾, 或與吏胥分利, 其弊罔有紀極. 渠輩額數既多, 雖有闕勿補可也. 何必一從渠言, 汲汲以括兒弱爲務乎. 且爲官者, 凡聽言裁事, 其能洞知明斷, 下不能欺者上也. 全不曉事, 而遇事輕着, 惟下言是聽者下也. 事在可否, 有未了然, 則聽言之際, 益可審慎, 應之濫而從之斬, 不受在下者簸弄者, 亦足爲中道也.

12) 閔友參, <書契序>(『梅菊堂集』 권2 「雜著」). (….) 余少時讀書, 或作或輟, 年既以晚, 又不遂刻意勵行, 粗自記名姓而止耳. 白髮如絲, 悔恨無益, 惟以後生, 可不及時務學也哉. 余乃慨然, 謀所以教育之. 於是乎, 詢諸一家, 同聲相應, 捐財齊力, 逐年殖利, 以備筆墨及書冊, 使其求無不獲

서계를 결성한 이유는 학업을 통하여 의혹을 푸는 한편 종족과 후손이 친목을 도모하여 조상의 유업이 계승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에 종족들이 재물을 출연하여 서적과 문필 도구를 구입하여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서계 설립의 취지는 후대에도 계승되었다. 방후손 閔晶植이 1933년에 쓴 민우삼의 행장에서 “또 書襖를 설립하여 서적 천여 권을 사들였는데 經史子集이 천장까지 가득 찼고, 기타 문방구의 수요도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 비록 종친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붓, 먹, 벼루, 종이 등의 물자가 없는 것을 걱정하기 않았다. 강습을 하는 사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백년이나 되었는데도 家學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 공이 남긴 공적이 아닌 것이 없다.”<sup>13)</sup>라고 적었다.

崔興遠(1705~1786)은 1735년부터 이후 22년 동안 『曆中雜錄』이라는 일기를 작성하였다. 다음은 일기 중에서 부친 崔鼎錫이 1735년(영조 11) 7월에 돌아가자 부친상을 치를 때의 장례 물품과 비용, 절차 등을 기록한 것 중의 일부이다.

初喪 때에 사용한 深衣는 황학동 이처사가 제작한 것이다. 棺槨는 仲父 崔晉錫의 처가가 힘을 써준 것에 의지하였는데 34 관을 주고 화산에서 사왔다. 槨材는 季父 崔崙錫의 처가가 힘을 써준 것에 의지하였는데, 1판을 주고 입암에서 사왔다. 관곽을 만든 사람은 許起萬이고, 신주와 雲鬘<sup>14)</sup>을 만든 사람은 都就殷이다. 관의 두께는 3촌이고, 길이는 1장1척7촌이고, 넓이는 2척1촌이고, 높이는 2척이 약간 넘는다. 옷칠은 1말 2합이 들어갔다. 기록하여 잊지 않고자 한다. 무덤은 팔공산 아래 광점촌 뒤의 조부 무덤 서쪽 기슭 西坐에 정하였고, 이달 13일에 장사지냈다. 날짜와 산소는 모두 權重俊이 잡아주었다. (...)<sup>13)</sup>

用無不贍, 而養成切磋之功業, 則其於勸學之方, 豈曰小補之哉. 嗚呼. 環視一世, 修契者何限, 而吾契之作, 不與它等 合一家子姪而爲之者, 則其意也, 豈止爲學其書, 解其惑而已哉. 蓋欲其累代之後, 族遠而情篤, 親疎而義密也. (...)

13) 閔晶植, <行狀> (『梅菊堂集』 권3 『附錄』). 又設書襖, 購得書籍千餘卷, 經史子集可以充棟, 而其他文房之須 皆由此而出, 雖宗族之貧乏者, 不患無穎玄泓楮之資, 彬彬多講習之人, 至今二百年之久, 而家學之不墮地者, 未必非公之遺也.

14) 발인할 때에, 靈柩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널판. 구름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이다.

보통 일기에서는 임종일과 장지, 장례일 등을 적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홍원은 심의·관각·신주·운삼의 제작자, 관각 마련에 도움을 준 사람과 구입처, 관각의 규모와 옷칠의 양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것은 이를 기록하여 후일에도 잊지 않고자 하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당시의 장례 물품과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있다.

李德懋(1741~1793)는 1764년(영조 40) 9월 9일부터 11월 1일까지 <觀讀日記>를 작성하였다. 이덕무는 일기의 앞부분에서 금년에 과거에 읽매이느라 서책을 볼 겨를이 없었는데, 重陽日을 맞이하여 고금의 서책의 열람하며 마음에 얻어진 바를 기록하여 靜養하는 방도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기사 중의 상당 부분은 서책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환을 근심하고 지인들과 만나 답소를 나누거나 주변을 탐방하는 등 개인의 일정을 적은 것도 적지 않다. 다음은 9월 18일 沈師正(1707~1769)을 방문한 내용을 적은 기사이다.

#### 9월 18일(정묘)

편지로 仲五(李時福)를 초청하여 서편 성문으로 나갔다. (...) 이어 盤松池 북쪽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 玄齋 沈師正의 처소를 방문하였다. 초가가 쓸쓸한데 동산의 단풍나무와 뜰 앞의 국화가 무르익고 아담하여 그 景色이 마치 발라놓은(拈) 듯하였다. 방금 집에 네 폭의 그림을 다 그렸는데 도사가 하늘로 오르는 용을 구경하고 있는 것과, 두 손님이 질푸른 나무 그늘과 하얀 폭포 사이에 마주앉아 있는 것과, 약초를 캐느라고 광주리와 도끼를 땅 위에 내려놓은 것과, 야윈 노새를 탄 사람 뒤에는 작은 侍童이 책을 메고 따르는 것인데, 모두 고상하여 속됨이 없었다.

그의 자는 頤叔으로 그림에 특성을 가졌으니, 한 시대의 哲匠이다. 觀我齋

15) 崔興遠, <曆中雜錄>(『百弗菴先生文集』 권11 「雜著」). 初喪時所用深衣, 黃鶴洞李處士所製. 棺材賴仲君氷家用力, 以三十四貫買來於花山, 槨材賴季君氷家用力, 以十三貫買來於立巖, 而造棺與槨者許起萬, 造主與娶者都就設也. 棺厚三寸, 長一丈尺七寸, 廣二尺一寸, 高二尺強, 漆則入一升二合, 蓋記之, 欲以爲不忘也. 卜地於八公山下廣店村後祖父墓西麓西坐之原, 葬以此月十三日, 日與山皆權生屋後所擇占也. (...)

趙榮祐·謙齋 鄭澈과 더불어 그 명성을 나란히 하였는데, 혹자는 그의 草蟲과 墨龍의 그림은 건줄 이가 없다고 한다. 조영석과 정선은 모두 늙어서 죽었으니 대가를 논한다면 이 한 사람뿐이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이미 희끗하였으나 언론이 몹시 오활하였다. 내가 “우리나라의 이름난 산수를 널리 구경하였습니까?”라고 물으니 “다만 금강산과 大興山城을 구경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내가 “왜 것처럼 본 곳이 좁습니까?”라고 물으니 “가까이 있는 북한산도 아직 유람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였다. 대개 그는 古僻에 빠져 돌아설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때 묻고 조잡한 자와 비교한다면 그 뛰어난 것은 하늘과 못[天淵]의 차이가 있다.<sup>16)</sup>

심사정의 거처를 방문하여 그가 방금 막 그린 네 폭의 俗氣 없는 그림을 보고 나서 그가 현재 화단의 대가임을 언급한 뒤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심사정의 오활함과 畫癖을 드러내었다. 이덕무는 심사정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듯하여 우리나라의 산수를 널리 유람하지 않은 것을 힐난하자 그는 북한산도 미처 구경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듣고 이덕무는 겸재 정선의 화풍을 모방하여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보다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고수하는 심사정이 뛰어나다고 평하였다. 하루의 일과에서 주변의 산수를 유람하고 지인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삶과 지향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일기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주변의 심상한 사물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주변의 사물은 사물 자체로 그냥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때로는 주변의 사물을 보고 커다란 깨우침이나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朴齊家(1750~1805)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窓戶와 階 砌를 보고 쓴 글이다.

창은 단청을 하지 않았으며 바깥 면을 발랐다. 창은 대개가 안으로부터 밀어 열기 때문에 바깥 면을 바르면 종이가 손에 닿지 않는다. 비바람은 바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 면을 바르면 종이가 벗겨지지 않는다. 햇별이 곧바

16) 李德懋, <觀讀日記>(『靑莊館全書』 제6권 「嬰處雜稿 二」).

로 들어와 그림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배나 환하다. 또 먼지가 창살에 쌓이지 않는다. 이것은 비록 자그마한 일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창호 안에는 끈을 묶어서 방울을 매달기도 하는데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딸랑 딸랑 소리가 울린다.<sup>17)</sup>

우리나라에는 물에 씻겨 반들반들해진, 주먹만한 크기의 조약돌이 물가에 많이 있다. 이 조약돌은 둥글고 미끌거리기 때문에 쓰임새가 별로 없다. 돛자리를 짜는 끈에 매달아 고드랫돌로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버린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를 계단과 계단 사이의 뜰에 깔아서 추녀의 낙숫물을 받거나 발로 디디고 다니는 데 편리하게 사용한다. 그 중에 작은 조약돌은 가로 세로 적당하게 깔아서 꽃과 새 등 다양각색의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sup>18)</sup>

창호지를 바깥 면에 바르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왜 바깥에 바를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하천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조약돌 같은 경우도 그 쓰임새가 거의 없는 사물로 존재할 뿐이다. 고작해야 고드랫돌로 쓰는 정도이다. 창호와 조약돌 같은 경우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주변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사물로서 관성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제가는 이러한 사물을 예사로이 보아 넘기지 않고 그 의미를 깨치려고 하였다. 박제가는 창호를 바깥 면에 발라야 창호가 바람에 찢기지 않고 햇살이 잘 들어오고 창살에 먼지가 쌓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또한 조약돌의 경우 중국에서는 추녀 아래 낙숫물을 받는 용도뿐만 아니라 人道에 깔아 다니기 편리하고 각종의 모양을 만들어 미적인 향유까지도 누리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중국의 정원에는 작은 돌을 다듬어 동식물 등의 각종 문양을 만들어 정원을 꾸미고 있다. 박제가에게 중국 여행이라는 경험

17) 朴齊家, <窓戶>(『北學議』內篇), 안대회의 『북학의-조선의 근대를 꿈꾼 사상가 박제가의 개혁 개방론』(돌베개, 2003)에서 71면에서 재인용.

18) 朴齊家, <階砌>(『北學議』內篇), 안대회의 『북학의-조선의 근대를 꿈꾼 사상가 박제가의 개혁 개방론』(돌베개, 2003)에서 72면에서 재인용.

은 일상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상하게 넘길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상의 자잘한 일도 면밀히 관찰하고 사색한다면 그 원인을 깨닫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의 깨달음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일기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후기 문인들의 일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윤최식과 심육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후기 문인의 하루 일과를 제시하고, 임영과 유만주의 글을 통하여 일기 등을 기술하는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일기의 작성을 통하여 자성의 계기로 삼는 한편 세상에의 권면과 징계라는 목적 하에서 개인의 구체적인 일상사, 나아가 고금의 역사·학문·시문·정치·제도·풍속 등 다양한 양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어서 김창흠, 민우삼, 최홍원, 이덕무, 박제가 등의 글을 통하여 조선후기 문인들이 일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였고, 또한 일상이 어떠한 양태로 반영되었으며 이들이 일상을 통하여 성찰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글 속에는 당대 三政의 문란과 목민관의 자세, 書契의 설립 목적과 효과, 장례 물품의 제작 과정과 비용, 심사정의 고집스런 畫癖을 통한 당대의 몰주체적인 화풍에 대한 비판, 창호와 조약돌을 통한 일상의 새로운 발견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덕무는 自省과 勸戒라는 기존의 효용론적 글쓰기 방식을 탈피하여 심상한 일상과 일상의 사물 속에서 사색을 통한 자득의 즐거움을 부각시켜 새로운 글쓰기의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일기와 편지 등의 글은 물론이고 조선후기 문인들이 지은 잡록, 전장, 비지 등의 기록에도 개인의 구체적인 일상의 모습과 함께 당대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 담겨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문인들이 남긴 다양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검토한 자료들 중에

서도 당대 일상을 명증하게 드러내는 것들을 추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일상의 다양한 경험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KCS I

참고문헌

『家政野談』(一簣 고 031-G129, 규장각 소장)

金昌翁, 『三淵集』

閔友參, 『梅菊堂集』

朴齊家, 『北學議』

沈鎬, 『樗村先生遺稿』

俞晚柱, 『欽英』

李德懋, 『靑莊館全書』

林泳, 『滄溪先生集』

崔興遠, 『百弗菴先生文集』

金何羅, 「日記文學으로서의 『欽英』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안대회, 『북학의-조선의 근대를 꿈꾼 사상가 박제가의 개혁 개방론』, 돌베개, 2003.

「[고문서…역사와의 대화]<4> ‘日用指訣」, 동아일보, 2004년 5월 24일.



A Study on Daily Life and the Meaning  
Of the Late *Joseon* Literary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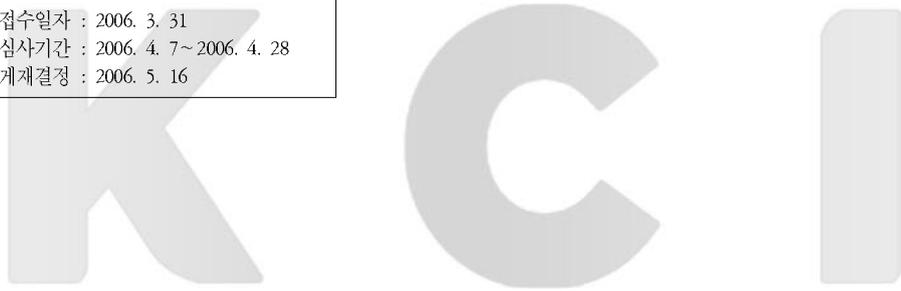
Kim, Nam-ki

This thesis is an inquiry into daily life and meaning of the late *Joseon* literary man's diary, letter, etc. *Yoon Choi-sik* and *Shim Yek* presented the daily routine of the late *Joseon* literary man. *Yim Young* and *Yu Man-ju* wrote down the attitude of keeping a diary. Their recordings stressed on self-examination and encouragement.

Writings of *Kim Chang-beup*, *Min U-sam*, *Choi Heung-won*, *Lee Deok-mu*, *Park Je-ga* reflected disorder of *Samjeong* and the attitude of a governor, the aim and effect of *Segye*, article on the process and expense of a funeral ceremony, the style of *Shim Sa-jeong*'s paintings and criticism of those days painting style, new discoveries from window paper and gravel.

Keywords : daily life, a diary, the late of *Joseon*, self-examination, encouragement, self-satisfaction

접수일자 : 2006. 3. 31 심사기간 : 2006. 4. 7~2006. 4. 28 게재결정 : 2006. 5. 16
---



к с і